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  
홍안유치원 두 번째 이야기

# 유치원에서 뭐하니?

## + “뭐할 때 즐겁니?”



수빈 - 만 5세반

아침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수학숙제 채점을 하며 아이들 공부 지도를 한다. 그 후 아이들의 점심을 교실로 옮겨 배식을 하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는 양치질과 세수를 시키고 낮잠을 재운다.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는 아이들이 쓴 수건을 빨고 복도를 청소한다. 아이들이 일어난 후에는 간식을 나눠주고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주고 다시금 공부 지도를 하면 하루가 지나간다.

“양치질 시간이다. 치약 짜주고 양치질 확인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은 혼내주는 시간이라서 내가 선생님이라 느껴지기 때문이다.”



새암 - 만 4세반

가장 먼저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교실을 청소한 후에 아이들의 글쓰기 공부를 도와준다. 공부가 끝나면 짧게나마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 하고 배식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점심 먹었던 숟가락을 설거지하고 책상과 의자를 모두 정리하여 모두 잘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낮잠이 끝난 후에는 교실청소를 하고, 오전과 같이 글쓰기 공부를 도와주면 하루가 끝난다.

“교실을 청소할 때이다. 내가 청소를 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진 - 만 3세반

수업시간에 수업을 도와드리며 일과를 시작한다. 수업시간에는 색칠공부나 글쓰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수업진행을 도와준다. 그 후엔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 밥을 먹인다. 그 후에는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우유를 나눠주고 화장실에 보낸다. 그리고 낮잠을 재우고, 복도를 청소한다. 낮잠시간이 끝나면 교실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준다. 그 후에 한 시간 가량 오후수업을 진행하면 하루가 끝난다.

“밥을 먹일 때이다. 밥 먹일 때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주면 기분이 좋다. 특히나 내가 먹이는 아이가 다른 선생님들이 먹이는 아이들보다 더 빨리 먹으면 더욱 좋다.”



헤리와 경필 - 만 2세반

아침에 가자마자 아이들 우유먹이는 걸 도와준다. 우유를 모두 먹은 후에는 한 시간 가량의 교육시간이 있다. 우리는 이때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한국 동요를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얼굴을 씻기며 교실을 청소한다. 청소가 끝나면 아이들을 재운다. 낮잠시간이 끝나면 아이들 간식과 우유를 먹이고, 오전과 같은 교육을 마치면 하루일과가 끝난다.

헤리 “내가 알려준 한국 동요를 내 앞에서 부를 때, 앞다리가 쭈욱~ 뒷다리가 쭈욱~”

경필 “아이들과 놀 때 이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노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도 함께 아이들과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홍안유치원 학예회 & 졸업식



5월 28일 홍안유치원의 학예회는 졸업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유치원생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그 동안의 활동과 함께 아이들의 장기를 뽐낼 수 있는 시간이였다.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온다.



우리도 학예회에서 오카리나 연주와 안무를 보여드렸다

졸업생들의 마지막 노래와 졸업장 수여.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 활동을 끝으로 우리는 홍안유치원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했지만, 아쉬움이 자꾸 든다. 홍안유치원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 "WHO ARE YOU?"

라운아띠 베트남 팀의 주된 활동으로 'HongAn'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약 2달. 이 활동기간동안 같이 일하며 가장 많이 웃고 떠들고 행복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항상 사랑으로 보살피며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그들은 바로 유치원선생님들. 유치원에서 일하며 언제가 행복한지 힘든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진기를 들이대면 꼬마아이들 마냥 수줍어하는 선생님들을 우리 라운아띠5기 베트남 팀과 함께 만나러 가보시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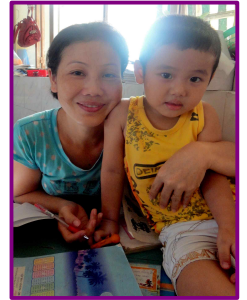
이 분의 생함은 Lien. 이수빈 단원이 함께했던 5살 반 Lop La의 선생님. 나이는 25살이고 이곳에서 일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고 하신다. 단순히 아이들이 기쁠 때 기쁘다는 이 선생님은 요즘 들어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어 힘들다고 하신다.

이 분의 생함은 Thuy. 광경필 단원이 활동했던 2살 반 Nha Tre의 선생님. 나이는 24살이고 유치원에서 일한지 1년이 되어간다고 하신다. 아이들이 나아가 어려 그런지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울어 힘들지만 이곳에서 일하시는 내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신다.



이 분의 생함은 Luan. 아이들의 아침, 점심, 그리고 간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짐을 오리해 주시는 유치원의 요리사. 놀랍게도 책 보고 혼자서 요리를 배웠다고 하신다. 아이들이 남김없이 다 먹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힘든 날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신다.

이 분의 생함은 Thuyen. 이새암 단원이 활동했던 4살 반 Lop Choi의 선생님 두 분 중 한분. 나이는 바공개. 아들 두 명의 어머니 이신 이분은 Lop Choi의 글씨쓰기 담당을 하신다. 아이들이 웃을 때와 밥을 맛있게 먹을 때가 좋고 행복하다고 하신다.



이 분의 생함은 Uyen. 이유진 단원이 함께했던 3살 반 Lop Mam의 선생님들 중 한분. 나이는 22살, 이곳에서 일한지는 6달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선생님이다. 아이들이 잠잘 때 가장 기쁘고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는 장난꾸러기 선생님.

이 분의 생함은 Hang. 4살 반 Lop Choi의 또 다른 선생님이다. 나이는 25살이고 유치원에서 일하신지 4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유독 다른 이 선생님은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내년에 가는 게 목표라고 하신다. 항상 Happy한 장난꾸러기 선생님.



이 분의 생함은 Kim. 3살 반 Lop Mam의 또 다른 선생님이자 같은 반 선생님인 Uyen의 언니이기도 하다. 나이는 25살이고 이곳에서 일한지는 4년. 자매와 같이 일하는 3살 반은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어 힘들 법도 하지만 항상 기쁘다고 하신다.

이 분의 생함은 Chi.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지만 점심시간엔 3살 반을 도와주러 가시는 제3의 선생님. 나이는 바공개이고 유치원에 계신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고 하신다. 일이 많을 때 힘들지만 선생님들과 일 끝난 뒤 또 는 방학 때 놀러갈 때면 스트레스 해소!



이 분의 생함은 An. 이혜리 단원이 활동하는 2살 반 Nha Tre의 선생님.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이므로 19살이고 일한지는 1년이 되어간다고 하신다.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기쁘고 말썽을 피우면 힘들다고 하시는 이 선생님은 5살 반 선생님 Lien의 여동생이다.

Our friends @HongAn

# 원장 선생님을 인터뷰 하다

홍안 유치원 활동이 1주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그리고 베트남에 오고 싶어 하는 다음 아씨들에게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알려 주고 싶었다.

## 원장쌤은 어떤 분?

이곳에서 일한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그 전에 다른 지역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이게 제가 원하던 일인가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인데 홍안 유치원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곳이니 제가 생각한 종교정신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운영하면서 힘든 점?** 선생님들이 떠날 때예요. 이 두 달 새에 한 분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유치원을 그만 두셨어요. 교사를 바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까지 각 학급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기쁠 때?** 여러분이 왔을 때 정말 기뻐요:D. 여러분이 이번 달까지 봉사를 끝내고 떠날 때 슬프겠죠?^^



Co Hien. 홍안유치원 원장선생님으로 온화한 미소가 특징이다.

## Q. 우리 라온아씨가 유치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길 기대하셨나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선생님들도 즐겁고,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똑같은 수업을 매일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새로운 노래와 놀이를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아요. 또 이곳은 시골이라서 아이들이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뭔지 잘 몰라요. 한국인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은 외국인을 만나볼 수 있고, 외국인과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죠.

## Q. 애들이 한국 동요를 알려주니까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직 베트남어도 잘 하지 못하는 아기들인데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한국노래를 듣고 즐거워한다면 교사로서도 기쁜 일이에요. 또 아이들 부모도 애들이 한국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한 가지 언어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한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베트남어를 써 주세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끼리 한국어를 쓴다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소통하기 힘들죠.

**Q. 흥안유치원에는 어떤 아이들이 다니나요?**

이곳은 동나이(Dong Nai)주 비엔호아(Bien Hoa)시로 공단지역입니다. 아이들의 부모 중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서 베트남 전역 가난한 지역에서 이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죠. 베트남에서 공립학교가 아닌 유치원 같은 사설 교육기관은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비쌌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도시 이주노동자들도 자녀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원비를 받고 있어요.

**Q. YMCA가 흥안유치원에 후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유치원이 YMCA의 수익사업인가요?**

YMCA는 유치원에서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그보다 1년에 20-3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아이들 부모 중에서 베트남 전쟁 후유증을 앓거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원비를 내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활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유치원에 놀러 와도 되냐는 질문에 흔쾌히 “duoc, duoc(물론 되지요),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여러분을 반가워 할 거예요.”라고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이번 기회에 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가지며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7주간 (4.12 5.28)의 흥안 유치원 활동을 마치며...**

**수빈** “처음에는 7주가 길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 너무 짧네요 :( 애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행복했어요.”

**새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뻐요. 행복했고 기뻐했던 순간임이 분명한데도 마치고 나니 아쉽고 슬프네요.”

**유진**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흥안 유치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이 사랑했어요. 활동 끝나고도 계속 찾아갈꺼니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경필** “유치원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준 흥안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고맙고, 특히 선생님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혜리** “하루가 자랄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아이들 덕분에 매일 밤 잠들며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나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겠죠? 앞으로 아이들을 보지 못할 생각에 buon(슬피요)”

# 베트남에서

## 1위부터 3위까지



### 먹을거리

#### 1위 열대과일



우리가 사는 호치민은 베트남의 남쪽, 열대지방이라 열대과일들이 풍부하다.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이 베트남에는 아주 많다. 과일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풍부하여 한국에선 비싼 과일들이 베트남에서는 현지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짠 편이다.

#### 2위 반미

베트남 식 샌드위치로 프랑스 바게트 빵에 햄과 오이 파테 등을 넣고 소스에 뿌려서 준다. 베트남 전역에서 어딜 가든 쉽게 찾을 수 있고 맛도 맛있어서 종종 우리의 식사거리가 되기도 한다.



#### 3위 반세오



쌀가루와 녹두가루를 코코넛 밀크에 반죽하여 돼지고기, 새우, 숙주 등을 넣고 전처럼 얇게 부친다. 그리고 그것을 상추나 향초 같은 야채에 싸서 소스에 찍어먹는다.

### 마실거리

#### 1위 카페수아

커피에 밀크 대신 연유를 넣은 연유커피!



#### 2위 신토

과일 연유 얼음을 함께 믹스한 생과일 주스와 비슷한 음료! 여러 종류의 신토



#### 3위 짜

우리나라 팥빙수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으나 달달하게 맛있어요 먹어봐요!

# 우리의 단골집

## 1위 Ben Song

YMCA 옆에 사는 동네 로안 언니와 함께 갔다 반해서 우리 마을의 단골 카페가 된 곳! 이곳은 사이공 강 옆에 위치해서 전망도 이쁠 뿐만 아니라 키가 큰 나무들과 오두막 연못이 어울려 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난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일반 베트남 카페들과 비슷하다!

## 2위 다이아몬드 플라자



우리팀원이 중심가에 가면 항상 가는 이곳! 일명 '다플' 이다. 우리 팀원이 가면 항상 푸드코트에 서 시간을 보낸다. 한국에서 만든 백화점이라 내부에 들어가면 꼭 한국에 온 것 마냥 친숙하다.

## 3위 카페 벳

호치민시 중심에 위치한 통일궁 앞 공원! 울창한 나무 숲 사이에 앉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낮에는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밤에는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



# 희귀품

## 1위 우산

우리가 사는 호치민은 우기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우기! 비가 자주 내린다. 하지만 베트남 인들은 거의 다 우비를 입고 다니고 우산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무엇이든 다 판다는 서점에도 우산은 없다.



## 2위 얇은 티셔츠

베트남에서 쇼핑을 해보면 예쁜 티셔츠들이 많다. 하지만 티셔츠들이 이 날씨에 입기엔 거의 다 두꺼워서 사기 꺼려진다.

## 3위 예쁜 편지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편지지가 필요한데 편지지 종류도 거의 없고 디자인 된 편지지라도 주관적으론 예쁘지가 않다.







# 달콤한 나의 도시 Nha Trang

우리에게 매일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는 Co Hoa의 고향은 나짱(Nha Trang)이다. 말로만 듣던, 가이드 북에서나 보던 나짱? 나짱은 에메랄드 빛 바다와 흰 모래 사장으로 유명한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무더운 날씨와 도시의 복잡거림에 지쳐있던 깨끗한 자연에 목말라하던 우리는 Co Hoa가 고향에 방문하신단 말에 눈이 번쩍! “같이 가도 되요?” “그럼, 되지.” 바다까지 걸어서 10분인 Co Hoa고향집에 머물며 베트남의 일반가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행운까지 누리며 이렇게 우리의 1박 2일 여행은 시작되었다.



나짱에 가면 꼭 봐야 할  
참파왕국의 가장 오래된  
사원인 폰 나가르 탑  
앞에서:D

우리가 기대하던 에메랄드 바다 앞에서 한 컷!

하루 종일 바다에서 휴식을 즐기고 베트남의 가정식도 맛보고 역사 깊은 관광지도 구경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으며, 바로 다음날부터는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다. 달콤한 우리의 도시 “나짱”. 한여름의 꿈처럼 지나갔지만 나짱은 짧은 휴가는 베트남 생활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생일 축하 합니다

# chúc sinh nhật



혜리! 생일  
5월 1일

“잠자려고 누웠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 들고 온 팀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Xin Cam on”

“일거 때문에 힘든데도 생일 챙겨줘서 참 고맙어요.”



새암! 생일  
5월 12일



한국에서 온 반가운 중간평가단~! 한국Y연맹 김도환 팀장님, 구미Y 이동식 총장님, 한국Y연맹 이영림 간사님!  
 중간평가단 세 분과 함께 3일 간 평소에 잘 먹지 못했던 한국음식과 처음 맛보는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평가라고 해서 엄청 딱딱하고 엄숙할까봐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진심어린 걱정과 염려를 해주셔서 우리도 맘 편하게 우리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3개월간의 우리의 지난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2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한국 중간평가단의 방문은 3개월 동안 베트남 생활에 무디어졌던 우리에게 초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첫날 저녁 한국식당 "최고집"



베트남Y-한국Y-RaonAtti 5th 중간보고



마지막 날 베트남식 만찬

### 5월 27~29일 우리의 Schedule

금	5:30 pm	중간평가단과 첫만남
	6:00 pm	3개월 만에 맛 본 돼지갈비와 삼겹살 ㅎ
토	5:30 am	영림 간사님과 유치원 활동하러 감
	2:00 pm	활동 예정 기관 방문 (Hope school, Youth club)
	6:00 pm	베트남식 저녁식사
일	9:00 pm	맥주한잔과 진솔한 대화
	9:00 am	활동보고 및 개인소감 발표
	12:00 pm	Cô Hoa의 베트남식 점심 만찬
	2:00 pm	아쉬운 이별 ㅠ-ㅠ



그리움 그곳 흥안유치원에  
심포를 찍다, *to be continued*

UBND P. TAM HÒA - PHÒNG GD & ĐT  
NHÓM TRẺ  
**HỒNG AN**  
ĐC: 24/66 - KP.3 - P. TAM HÒA - BH - ĐN  
ĐT: 0613 894 242      SỐ: 260/GP - UBND/P

